**급증하는 심리상담 수요, 발전이 정체된 심리상담업**

<개요> 중국 사회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의 자살인구는 세계 전체의 30%에 달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1,600만 명에 이른다. 중국내 전문 심리상담업의 발전 정체는 정신질환 문제와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최근 대형 재난재해 증가, 대학교 살해사건 등으로 사회적 심리상담 수요는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의 심리상담업은 전문 교육체계와 시장 질서 미흡으로 인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심각한 공급부족 상태에 처해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인 ‘심리의사(心理医生)’나 ‘정신치료(精神治疗)’에 심리상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내 사회 심리상담업의 산업화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 진입장벽, 규범화, 전문화 수준이 낮아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는 무분별하게 급증하는 추세이나 이들이 합법적으로 심리상담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은 열악해 시장의 공급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나날이 급증하는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업계 정비와 시장의 규범화, 전문성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 중국 심리상담시장 발전 현황

○ 심리상담 수요 급증

– 중국은 자살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2010년 인구 10만명당 23.17명의 자살률을 기록함

– 중국과학원 심리연구소 우루이화(吴瑞华)연구원은 중국의 전문 심리상담 인재의 부족이 높은 자살률을 야기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함

–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정신보건 분야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 중국의 각종 정신질환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고, WHO에 따르면 중국내 중증 정신병 환자 수는 1,600만 명에 달해, 약 1.9억 명이 일생에 한번 이상은 전문적인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집계함

– 그에 비해 중국에서 심리치료와 심리상담에 종사하는 전문인은 5만명 정도에 그쳐는 것으로 추측돼 심각한 공급 부족 사태에 처해 있음

– WHO에서 제시한 ‘건강한 사회의 평형점’은 인구 1,000명당 1명의 심리상담사인데, 예로 들어 칭다오가 이 조건에 부합하려면 총 8,000명의 심리상담사가 필요함. 하지만 실제로 칭다오의 심리상담사 수는 200여명에 불과함

– 한 시장조사기관이 2008년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우한 등 10대 중대형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5.1%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함

– 위생부(卫生部)에 따르면 중국은 60세 이상 인구가 1.78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6%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2010년 6차 인구센서스)로, 60세 이상 인구의 치매 발병률이 4.2%, 65세 이상 인구의 우울증 발병률이 4.4%임을 감안할 때, 특히 노약자를 위한 심리상담과 정신치료 수요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음

– 노인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는 대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수해민들의 심리불안, 점점 치열해지는 사회 경쟁으로 인한 직장인과 학생들의 심리장애도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중국 청소년의 심리문제 발병률은 21.6~32%에 달하며, <중국 아동의 생존과 발전: 통계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17세 이하의 소년과 아동 중 최소 3,000만 명이 각종 정서적 장애와 행동장애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함

– 최근 닝보시(宁波市) 심리보건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14%, 중학생의 13%가 각종 심리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2년)

– 심리장애와 정서적 불안감을 안고 있는 학생들은 주로 충동행위와 거짓말, 폭력, 도둑질 등의 행위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타인을 가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까지 이어져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음

– 특히 지난 몇 년간 잇달아 발생한 대학생의 자살과 살해사건 등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킴

– 올해 4월 난징(南京)항공우주대학에서 같은 기숙사를 사용하는 학생이 문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함

– 또 최근 푸단대학(复旦大学) 기숙사에서 한 석사생이 같은 방을 사용하는 다른 학생에서 독극물을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해 대학생의 심리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오름

– 그러나 심리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많지만, 심리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정신질환을 치부로 여겨 숨기려 드는 중국인의 고정관념 때문에 정작 적극적으로 심리상담을 받는 사람은 적음

– 게다가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심리의사(心理医生)’나 ‘정신치료(精神治疗)’라는 명칭으로 상담치료와 약물(병원)치료를 하는 업종을 통칭하기 때문에 중국의 심리컨설팅 산업화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심리상담업의 발전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와 통계도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이로 인해 정신질환보다는 가볍지만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심리적 문제를 해소해 줄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심리적 문제를 심각한 정신병으로 키우게 됨

○ 심리상담업의 현황과 문제점

– 정신치료 분야는 정책과 제도가 나날이 완비되고 개선되어가고 있지만, 심리상담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편이며, 심지어 관련 제도와 법률,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중국 최초의 <정신위생법(精神卫生法)>이 2013년 5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됨. 이 법은 정신질환 환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할 때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자의의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이 법이 만들어진 주된 계기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병 환자 중 자기 의지로 입원한 환자 비중이 20%에 불과하기 때문임

– 그러나 법에서 규정한 ‘자의의 원칙’ 범위는 환자가 자살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 하에서만 강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작 사회적 불안감을 키우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행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정신치료의 전단계인 심리상담업 발전이 시급함

– 현재 중국에서는 경제 발전으로 인해 생활리듬이 빠르고 스트레스가 비교적 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1선 도시를 위주로 ‘심리의사’가 급증하고 있음

– 중국에서 심리컨설팅이 가장 잘 발전된 지역은 상하이로, 상하이시의 한 심리상담센터에 따르면 연간 방문자가 약 5만여 명(2011년)에 달하고 연평균 20% 가량 증가하고 있다고 함. 또한 라디오 프로그램 등을 통한 심리상담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이 국가차원에서 심리 문제를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2002년 ‘심리상담사 국가 직업자격’이 정식으로 도입되었고, 2004년에는 미성년자의 정신적 건강에 좋은 사회적 환경 조성을 강조하면서 일정 규모의 병원에 심리과를 개설하고 초중등 및 대학교에는 심리상담실을 개설하도록 요구함

–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심리상담사 교육기관이 급증하고, 많은 심리상담사가 배출되기 시작함

–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의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약 20만명 정도로 연간 2만~3만명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이런 급속한 증가세는 심리상담사의 진입장벽이 낮고, 교육기간이 짧으며 , 시험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지속적인 재교육이 부족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임

– 심지어 상하이의 한 심리치료센터에서는 한 남성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져 심리상담사의 자질과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함

– 상담가격도 기관별,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가격체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중국 심리상담 비용은 한 시간에 100위안에서 1,000위안(평균 300위안)으로 차이가 매우 크며,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1000위안 이상의 상담비용을 요구하기도 함

– 심리상담기관 개설 절차도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음. 공상부문은 심리상담기관을 신규 설립할 때 반드시 위생부문의 <의료기관영업허가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생부에 따르면 심리상담은 의료기관 영업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공상부문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즉 심리상담기관을 설립하고 싶어도 설립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회사등록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이는 심리상담업의 발전에 매우 큰 제약요인이 됨

– 다시 말해, 현재 중국의 심리상담업은 아직 ‘심리의사(의료부문)’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으며, 진입장벽, 규범화, 전문화 수준이 낮아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는 무분별하게 급증하는 추세이나 이들이 합법적으로 심리상담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은 열악해 시장의 공급부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 나날이 급증하는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업계 정비와 규범화, 지속적인 전문교육과 직업훈련, 전문성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수립이 절실히 요구됨

\* 출처: 新浪(news.sina.com.cn), 千龙网(www.qianlong.com), 卫生部(www.moh.gov.cn), 中新网(www.chinanews.com), 大众网(www.dzwww.com), 华夏心理(www.psychcn.com), 健康报